

Analysis of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Difference in Resilience and Sub-factor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Background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중·고등학교 학생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 및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간의 영향 관계 분석

Ja Yang Park¹, Seong Woo Choi²

박자양¹, 최성우²

¹ Student, Dept. Lifelong Education, Soongsi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clsrn9105@hanmail.net

² Professor, Dept. Lifelong Education, Soongsi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choiss@ssu.ac.kr

Corresponding author: Seoung Woo Cho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fferences in resilience and the sub-factor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background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requency analysis,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ilience, it was found that male students were higher than female students in terms of positive factors for students subject to education welfare.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resilience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educational welfare program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cultural experience, psychological psychological emotionality, health welfare, and priest mentoring, excluding learning. Third, the explanatory power of self-regulation ability and positivity on interpersonal ability was 42.4%. Among the measurement variables of self-regulation ability, cause analysis power showed the highest explanatory power affecting interpersonal ability at 23.3%, and gratitude showed the highest explanatory power at 36.7% as a measure variable of positivity. In conclusion, the resilience of students subject to education welfare shows a low level only in the measurement variables of some sub-factors. Individual interventions and approaches are required.

Keywords: Resilience, Self-regulation Ability, Interpersonal Ability, Positivity, Education Welfare Target Students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교 학생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 및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빈도분석, t-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회복탄력성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교육복지 대상 학생의 경우 긍정성 요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복지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습을 제외한

Received: August 14, 2022; 1st Review Result: September 29, 2022; 2nd Review Result: November 04, 2022
Accepted: November 30, 2022

문화 체험, 심리 정서, 보건복지, 사제멘토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자기조절능력, 긍정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42.4%로 나타났다. 자기조절능력의 측정변수 중 원인분석력이 23.3%로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고, 긍정성의 측정변수에서는 감사하기가 36.7%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교육복지 대상 학생의 회복탄력성은 일부 하위요인의 측정변수에서만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회복탄력성의 이해와 향상을 위해서는 회복탄력성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각 하위요인의 측정변수에 대한 개별적인 개입과 접근이 필요하다.

핵심어: 회복탄력성,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교육복지 대상 학생

1. 서론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은 발달과정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할 수 있어 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치료 차원에서 중요하다. 최근 심리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는 청소년들의 적응 능력을 향상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연구로 회복탄력성에 주목하고 있다. 회복탄력성은 개인의 역경을 극복하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의 지표이자, 지속해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1].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역경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방적인 차원으로 필요한 요소로 일상의 작은 스트레스에서도 계속 작용하여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준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성으로 보면, 불안이나 우울함에 취약하지 않고 긍정적인 정서를 보이며 타인에게 자신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2]. 회복탄력성은 강점이나 약점과 같은 개인의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개인 내적, 외적인 위험 과정과 보호 과정 사이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역동적 과정으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3]는 점에서 선행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밝혀 온 회복탄력성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기 이전에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문제에서 두드러지는 또래 관계와 관련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그 하위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변수들에 대한 세부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별과 연령에 따라 회복탄력성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성별과 연령에 따른 개입방식 또한 달라져야 하는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회복탄력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초등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중·고등학교 학생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해 외부 위험 요소와 환경적인 장애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한 연구 역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으로 성별, 학교급 간, 교육복지 대상 및 교육복지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회복탄력성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따라 회복탄력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은 서로 어떠한 영향 관계가 있는가?

2. 문헌 고찰 및 연구 방법

회복탄력성의 연구는 1970년 Norman Garmezy에 의하여 ‘Project Competence’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연구는 조현병의 특성과 기원에 관한 내용이었다. 연구 중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적응 및 발달을 보이는 아동에 관한 관심이 회복탄력성 연구의 전조가 되었다. 지난 수십 년간 여러 나라의 많은 학자가 서로 다른 개념과 다양한 이론들을 통해 회복탄력성에 관해 다양한 연구를 남겨 놓았는데, 개념과 이론은 달라도 회복탄력성의 근저에는 인간관계 능력이 자리 잡고 있음을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다[4].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및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과 학교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안녕감 자기조절능력은 대인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긍정심리 자본의 하위요인과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긍정심리 자본이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회복력, 자기효능감, 희망이라고 보고하였다[7]. 긍정 정서가 경험 회피와 자기 자비를 통해 인지적인 공감을 촉진하고, 이것이 대인관계 유능성의 증가로 이어지는지의 경로 모델이 검증되어 자기조절능력, 긍정성은 대인관계능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

2.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모집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은 비확률 표본추출법 중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서울지역에 소재한 학교 6개교에는 설문지를 개별 면접조사인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작성하여 회수하였고, 6개 기관 교육복지센터에는 설문지 개별 면접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총 40일간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총 421명이 설문에 응답했고, 이 중에서 응답 불성실과 응답 편의 현상이 있는 7명을 제외한 최종 414명(98.3%)을 분석에 사용했다. 교육복지 프로그램 참여자는 1년간 지속되는 프로그램에서 초기 단계인 2개월째에 회복탄력성이 측정되었다.

2.2 측정 도구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 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 도구는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회복탄력성 척도(KRQ-53)이다. 이 조사 도구는 김주환(2011) 교수가 레이비치와 샤테(Revich & Shatte, 2002)의 회복탄력성 검사 도구(RQ-56)와 그 간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회복탄력성 관련 문항을 수집 후에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쳐 53개 문항으로 최종 구성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KRQ-53)를 수정 없이 본 연구의 설문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회복탄력성 척도 53개 문항에 대한 총 9개 측정변수의 크론바 알파(Cronbach's α) 값은 .893에서 .905로 나타났다. 이는 문항 내적 합치도가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3. 연구 결과분석

3.1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따른 회복탄력성 차이

성별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자기조절능력 세부 측정변수에서는 일반 학생의 충동통제력(남학생 평균 3.10, 여학생 평균 2.98), 원인분석력(남학생 평균 3.35, 여학생 평균 3.4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인관계능력 측정변수에서는 일반 학생의 자아확장력(남학생 평균 3.75, 여학생 평균 3.8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긍정성의 측정변수에서는 교육복지 대상 학생의 자아낙관성(남학생 평균 3.18, 여학생 평균 3.1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일반 학생의 경우 생활만족도(남학생 평균 3.42, 여학생 평균 3.21), 감사하기(남학생 평균 3.68, 여학생 평균 3.8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1] 성별에 따른 회복탄력성 하위변인의 차이

[Table 1] Differences in Resilience Sub-variables by Gender

구분	구분	성별	N	M	SD	t
자기조절 능력	충동통제력	일반 남	73	3.10	.55	1.208**
		일반 여	121	2.98	.79	
	교육복지	남	68	3.08	.64	1.499
		여	150	2.92	.75	
	원인분석력	일반 남	73	3.35	.48	-1.267**
		일반 여	121	3.45	.67	
교육복지 남	68	3.34	.56	-1.321		
교육복지 여	150	3.46	.63			
대인관계 능력	자아확장력	일반 남	73	3.75	.58	-.985**
		일반 여	121	3.84	.80	
	교육복지	남	68	3.66	.77	-.670
		여	150	3.74	.75	
	자아낙관성	일반 남	73	3.29	.53	.371
		일반 여	121	3.26	.65	
교육복지 남	68	3.18	.58	.353*		
교육복지 여	150	3.15	.73			
긍정성	생활만족도	일반 남	73	3.42	.72	1.742*
		일반 여	121	3.21	.95	
	교육복지	남	68	3.39	.82	2.996
		여	150	2.98	.97	
	감사하기	일반 남	73	3.68	.67	-1.456*
		일반 여	121	3.83	.80	
교육복지 남	68	3.60	.66	-1.202		
교육복지 여	150	3.73	.77			
전체	일반 남	73	3.46	.46	.232**	
	일반 여	121	3.45	.66		
교육복지 남	68	3.39	.50	1.030*		
교육복지 여	150	3.31	.69			

* $p < .05$, ** $p < .01$

3.2 학교급 간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

학교급 간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학교급 간은 일반 학생의 대인관계능력(중학생 평균 3.59, 고등학생 평균 3.4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2] 학교급 간에 따른 회복탄력성 하위변인의 차이

[Table 2] Differences in Resilience Sub-variables by School Level

구분	구분	학교급	N	M	SD	t	
대인관계 능력	소통능력	중	129	3.20	.65	.777	
		고	66	3.11	.77		
	교육복지	중	127	2.97	.67	-1.050	
		고	92	3.08	.76		
	공감능력	일반	중	129	3.71	.61	1.869
		고	66	3.54	.61		
교육복지	중	127	3.57	.58	-.438		
	고	92	3.61	.61			
자아확장력	일반	중	129	3.86	.66	1.573	
		고	66	3.69	.84		
	교육복지	중	127	3.72	.75	.016	
		고	92	3.71	.77		
	전체	일반	중	129	3.59	.51	1.566*
		고	66	3.45	.63		
교육복지	중	127	3.42	.50	-.621		
	고	92	3.47	.57			

* $p < .05$

3.3 교육복지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회복탄력성 차이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인 교육복지프로그램의 대상 학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담임 추천(위기 및 결손 가정)의 저소득층 자녀, 소외계층 자녀, 학교 부적응 학생 등을 말한다[9].

일반 학생과 교육복지 대상 학생의 교육복지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교육복지 프로그램은 학습, 문화 체험, 심리 정서, 보건복지, 사제멘토링 총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t-test 분석 결과, 학습을 제외한 문화 체험, 심리 정서, 보건복지, 사제멘토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3.1 문화 체험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

문화 체험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일반 학생의 충동통제력(참여자 평균 2.92, 비참여자 평균 3.10)과 자아확장력(참여자 평균 3.73, 비참여자 평균 3.8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3] 문화 체험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회복탄력성 하위변인의 차이

[Table 3] Differences in Resilience Sub-variables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Cultural Experience Program

구분	구분	참여 여부	N	M	SD	t	
자기조절 능력	충동통제력	일반	참여	81	2.92	.63	-1.770*
		비참여	114	3.10	.75		
	교육복지	참여	139	3.02	.75	1.237	
		비참여	80	2.89	.66		
대인관계 능력	일반	참여	81	3.73	.82	-1.214*	
		비참여	114	3.86	.65		
	교육복지	참여	139	3.66	.78	-1.466	
		비참여	80	3.81	.71		

* $p < .05$

3.3.2 심리 정서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

심리 정서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심리 정서 프로그램은 교육복지 대상 학생의 생활만족도(참여자 평균 2.99, 비참여자 평균 3.2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일반 학생은 감사하기(참여자 평균 3.66, 비참여자 평균 3.84)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4] 심리 정서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회복탄력성 하위변인의 차이

[Table 4] Differences in Resilience Sub-variables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Psycho-emotional Programs

구분	구분	참여 여부	N	M	SD	t	
긍정성	생활만족도	일반	참여	72	3.12	.92	-1.907
		비참여	122	3.37	.83		
		교육복지	참여	109	2.99	1.01	-1.958*
			비참여	109	3.24	.86	
	감사하기	일반	참여	72	3.66	.85	-1.567*
		비참여	122	3.84	.68		
교육복지	참여	109	3.63	.76	-1.237		
	비참여	109	3.76	.71			

* $p < .05$

3.3.3 보건복지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

[표 5] 보건복지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회복탄력성 하위변인의 차이

[Table 5] Differences in Resilience Sub-variables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Health and Welfare Programs

구분	구분	참여 여부	N	M	SD	t	
자기조절 능력	충동통제력	일반	참여	43	2.93	.59	-1.131*
		비참여	152	3.05	.74		
	교육복지	참여	118	2.98	.76	.203	
		비참여	101	2.96	.67		

* $p < .05$

보건복지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보건복지 프로그램은 일반 학생의 충동통제력(참여자 평균 2.93, 비참여자 평균 3.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3.4 사제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

사제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사제멘토링 프로그램은 교육복지 대상 학생의 소통능력(참여자 평균 3.08, 비참여자 평균 2.9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일반학생의 대인관계능력(참여자 평균 3.63, 비참여자 평균 3.52)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6] 사제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회복탄력성 하위변인의 차이

[Table 6] Differences in Resilience Sub-variables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Priest Mentoring Program

구분	구분	참여 여부	N	M	SD	t	
대인관계 능력	소통능력	일반 참여	30	3.21	.69	.387	
		일반 비참여	165	3.16	.69		
	교육복지	교육복지 참여	89	3.08	.77	1.227*	
		교육복지 비참여	128	2.96	.65		
	전체	일반	일반 참여	30	3.63	.63	.850*
			일반 비참여	165	3.52	.54	
교육복지		교육복지 참여	89	3.46	.57	.663	
		교육복지 비참여	128	3.42	.50		

* $p < .05$

3.4 회복탄력성 변인 간의 관계 분석

중·고등학생의 회복탄력성 세부 측정변수인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력, 생활만족도, 감사하기와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고,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회복탄력성 변인 간의 상관관계분석

[Table 7]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Resilience Variables

변인	1	2	3	4	5	6	7	8	9
1. 감정조절력	1								
2. 충동통제력	.539***	1							
3. 원인분석력	.445***	.461***	1						
4. 소통능력	.363***	.369***	.473***	1					
5. 공감능력	.206***	.243***	.408***	.378***	1				
6. 자아확장력	.261***	.237***	.281***	.458***	.482***	1			
7. 자아낙관성	.434***	.328***	.336***	.456***	.251***	.534***	1		

8. 생활만족도	.360***	.359***	.235***	.334***	.133***	.417***	.533***	1	
평균	3.15	3.00	3.42	3.09	3.62	3.76	3.21	3.19	3.73
SD	.63	.71	.61	.70	.60	.74	.65	.91	.74

* $p < .001$

3.5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간의 영향 관계

중·고등학생의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의 다중회귀분석

[Table 8]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elf-regulation Ability, Interpersonal Ability, Positivity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Beta	t	F	VIF
		B	SE				
대인관계 능력	(상수)	1.240	.137		9.067***		
	자기조절능력	.237	.045	.230	5.282***	151.177***	1.355
	긍정성	.440	.038	.502	11.530***		1.355
R Square: .424					Adjusted R Square: .421		
Std. Error: .41271					Durbin-Watson: 2.053		

* $p < .001$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이 서로 어떠한 영향 관계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조절능력($B = .237$), 긍정성($B = .440$)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 유의수준 $p < .001$ 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자기조절능력($\beta = .230$), 긍정성($\beta = .502$)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기조절능력, 긍정성이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은 F 통계값 151.177로 통계적 유의수준 $p < .001$ 에서 42.4%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 간의 상관 정도를 나타내는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해 VIF를 산출한 결과 모든 독립변수 간의 독립성이 검증되어 회귀모형의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표 9]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자기조절능력, 긍정성의 다중회귀분석

[Table 9]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elf-regulation Ability and Positivity on Interpersonal Ability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R^2	F	VIF
대인관계 능력	(상수)	1.886	.143		13.164***			
	자기조절능력	.502	.044	.487	11.328***	.237	128.316***	1.000
	(상수)	1.647	.117		14.121***			
	긍정성	.543	.034	.620	16.051***	.385	257.631***	1.000

* $p < .001$

대인관계능력에 대해 자기조절능력, 긍정성이 각각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설명력은 자기조절능력 23.7%, 긍정성 38.5%로 긍정성의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자기조절능력을 구성하는 측정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자기조절능력 측정변수의 다중회귀분석

[Table 10]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elf-regulation Ability Measurement Variables for Interpersonal Ability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R ²	F	VIF
대인관계 능력	(상수)	2.530	.128		19.754***	.124	58.104***	1.000
	감정조절력	.304	.040	.352	7.623***			
	(상수)	2.672	.108		24.760***	.128	60.380***	
	충동통제력	.272	.035	.358	7.770***			
	(상수)	2.016	.133		15.101***	.233	125.458***	
원인분석력	.430	.038	.483	11.201***				

*p<.001

자기조절능력을 구성하는 측정변수들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감정조절력 12.4%, 충동통제력 12.8%, 원인분석력 23.3%로 원인분석력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긍정성을 구성하는 측정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긍정성 측정변수의 다중회귀분석

[Table 1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Positive Measure Variables for Interpersonal Ability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R ²	F	VIF
긍정성	(상수)	2.052	.114		17.953***	.285	164.376***	1.000
	자아낙관성	.447	.035	.534	12.821***			
	(상수)	2.759	.090		30.755***	.148	71.293***	
	생활만족도	.228	.027	.384	8.444***			
	(상수)	1.836	.109		16.825***	.367	774.783***	
감사하기	.443	.029	.605	15.439***				

*p<.001

긍정성을 구성하는 측정변수들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자아낙관성 28.5%, 생활만족도 14.8%, 감사하기 36.7%로 감사하기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중 성별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육복지 대상 학생의 경우 긍정성의 측정변수인 자아낙관성에서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의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스트레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에 더 유연하게 반응하고 적응적 대응 전략에 더 능숙하며, 어려움 상황에서 더 잘 인내하고 부정적 감정을 잘 조절한다고 강조한 연구 결과[10]와 어린 나이인 아동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탄력성의 수준이 높지만, 사춘기가 시작되는 청소년기에는 남학생이 더 높은 수준의 탄력성을 지닌다고 밝힌 일부 국외 연구[11]의 관점과도 유사하다. 탄력성의 성별 차이를 확인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탄력성이 여학생의 탄력성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2-15].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학교급 간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 학생의 경우 대인관계능력에서 중학생 평균이 고등학생 평균보다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에서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회복탄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16].

셋째, 교육복지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습을 제외한 문화 체험, 심리 정서, 보건복지, 사제멘토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복지 대상 학생의 경우 사제멘토링 프로그램에서는 대인관계능력 측정변수인 소통능력에서 참여 학생의 평균이 비참여 학생의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심리 정서 프로그램의 경우 긍정성의 측정변수 생활만족도에서 비참여 학생의 평균이 참여 학생의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제멘토링 프로그램은 심리 정서 프로그램에 비해 단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해도 프로그램 참여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에서 담임교사 추천에 의해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복지 대상 학생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단기적인 효과성은 높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육복지 대상 학생의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문화 도움 정도와 심리 도움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17].

넷째,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이 서로 어떠한 영향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자기조절능력의 측정변수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과 긍정성의 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하기의 측정변수들이 대인관계능력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지를 밝혔다. 이는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의 핵심 요소인 인간관계는 소통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며, 강한 회복탄력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긍정적 정서를 향상해야 한다. 또한, 이 긍정적 정서는 대인관계능력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으며, 높은 회복탄력성을 지닌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태도와 높은 자기조절능력을 지니고 있고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으로 학교적응력도 높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4].

본 연구 결과 제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선 그동안 교육복지 대상 학생의 회복탄력성은 낮을 것이라는 전제와 이에 따른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요인과 방안을 가지고 연구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교육복지 대상

학생의 회복탄력성은 일부 하위요인의 측정변수에서만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교육복지 대상 학생의 회복탄력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회복탄력성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각 하위요인의 측정변수에 대한 개별적인 개입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회복탄력성의 세부적인 특성을 밝혀냄으로써 회복탄력성의 기초개념을 형성하는데 이론적인 기여는 물론, 교육복지 대상 학생의 교육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실천적 접근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회복탄력성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그 특성을 청소년의 개인 내적인 요인에 국한하지 않고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Woo-Yeol Shin, Min-Gyu Kim, Joo-Han Kim,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udies on Korean Youth*, (2009), Vol.20, No.4, pp.105-131.
- [2] Geun-Hwa Shin, A Study on Resilience Type of the Juvenile Delinquents, *Forum For Youth Culture*, (2017), No.51, pp.99-127.
DOI: <http://dx.doi.org/10.17854/ffyc.2017.07.51.99>
- [3] Hee-Yeon Kim, The Effect of Cognitive-Behavioral Music Activity Program in the Resilience of Juvenile Delinquent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ster Thesis*, pp.1-68, (2014)
- [4] Joo-Han Kim, *Resilience: The power of mental strength to turn trials into good fortune*, Wisdom House, pp.155-177, (2019)
- [5] Chun-Kyung Jeong, The Effect of Adolescents' Self-regulation Ability and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on School Happines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Korea University, Master Thesis*, pp.1-80, (2019)
- [6] Chang-Min Lee,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Child Communic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ongguk University, Master Thesis*, pp.1-87, (2018)
- [7] Jeong-hyeon Park, Gyeong-ae Jang, Mi-sook Jo, The Effects of Dental Hygiene Student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ommunication Skills and Interpersonal Skill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2020), Vol.10, No.6, pp.193-199.
- [8] Kyung-Hee Kim, Hee-Kyung Lee, The Effect of Positive Emotion on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Exploration of path Model Among Experiential Avoidance, Self-Compassion, and Cognitive Empath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5), Vol.16, No.6, pp.83-107.
- [9] Ye-Jin Choi, Ji-Young Kim, Mi-Young Lee, Yeo-Jin Yoon, 2022 Seoul Education Welfare Project Operation Manual,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pp.1-223, (2022)
- [10] Ji-Young Jeong, Jeong-Ha Lim, The Effect of Temperament, Family Health, and Social Support on Self-Resilience of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Education Association*, (2011), Vol.23, No.1, pp.37-51.
- [11] J. Sun, D. Stewart, Development of population-based resilience measures in the primary school setting, *Health education*, (2007), Vol.107, No.6, pp.575-599.
DOI: <https://doi.org/10.1108/09654280710827957>
- [12] Jeong-Suk Kim, Ki-Hye Lee, A Comparative Analysis on Determinants of Resilience Between General Adolescents and Adolescents in Povert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016), Vol.26, No.2, pp.31-56.
DOI: <https://doi.org/10.32465/ksocio.2016.26.2.002>
- [13] Yeo-Jeong Hwang, Kyung-Geun Kim,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Ego Resiliency Among Junior High School Students: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014), Vol.24,

No.1, pp.205-229.

DOI: <https://doi.org/10.32465/ksocio.2014.24.1.008>

- [14] M. Pinquart, Moderating Effects of Dispositional Resilience on Associations Between Hass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09), Vol.30, No.1, pp.53-60.
- [15] M. Skrove, P. Romundstad, M. S. Indredavik, Resilience, Lifestyle and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The Young-HUNT Stud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2013) Vol.48, No.3, pp.407-416.
DOI: <https://doi.org/10.1007/s00127-012-0561-2>
- [16] Esther Joe, The Effects of the Program Satisfaction and Resiliency on School Adaptation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 in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 A Study in Chungcheongnamdo, Gongju University, Master Thesis, pp1-76, (2019)
- [17] Ji-Sun Lee, The Influence of Perceived Helpfulness of Education Welfare Program on School Happiness of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Soongsil University, Master Thesis, pp1-70, (2014)